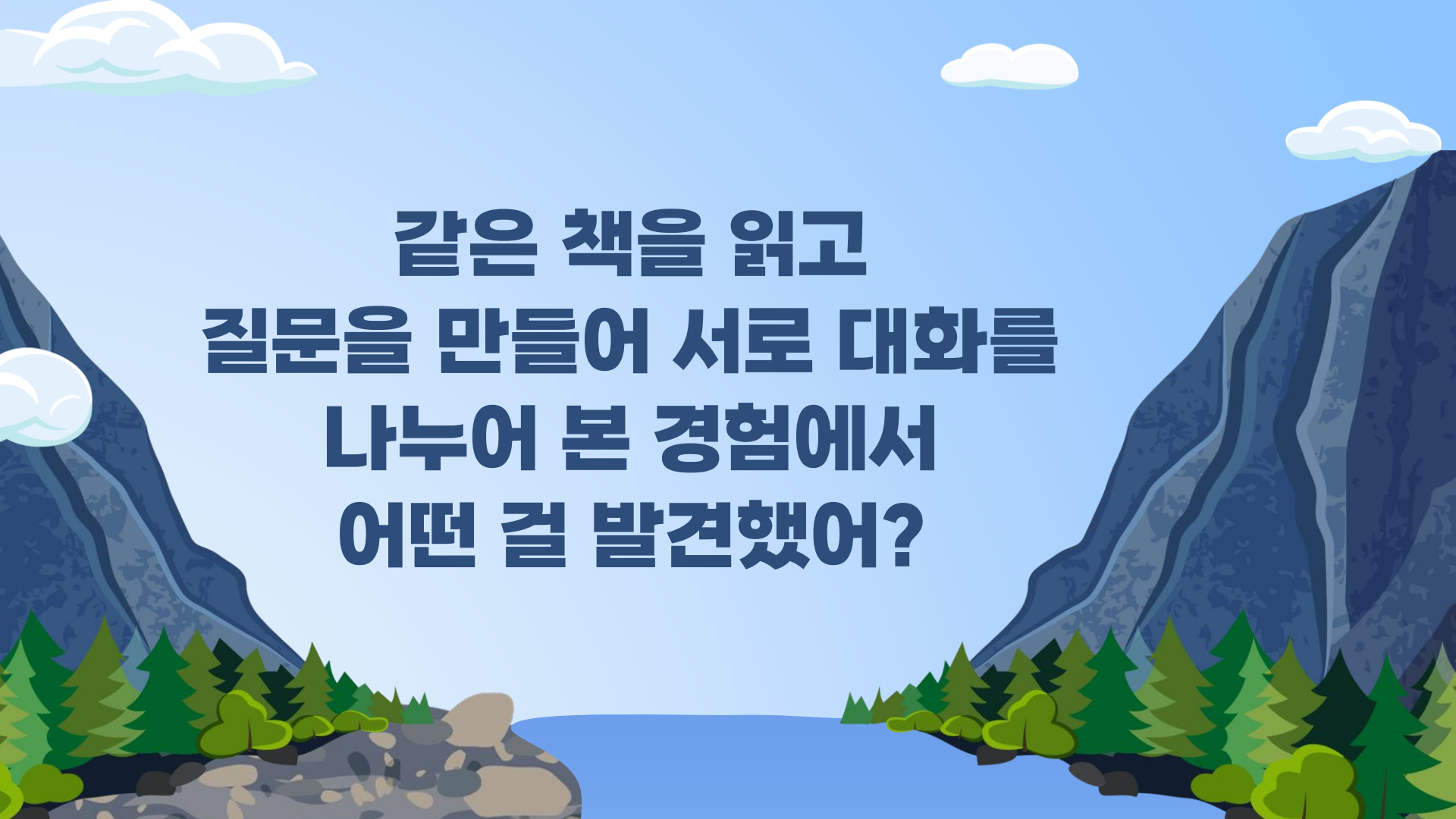




ESG와 시민의 행동

9주차. 시선이 머무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된다

상허교양대학 송지호 교수



**같은 책을 읽고
질문을 만들어 서로 대화를
나누어 본 경험에서
어떤 걸 발견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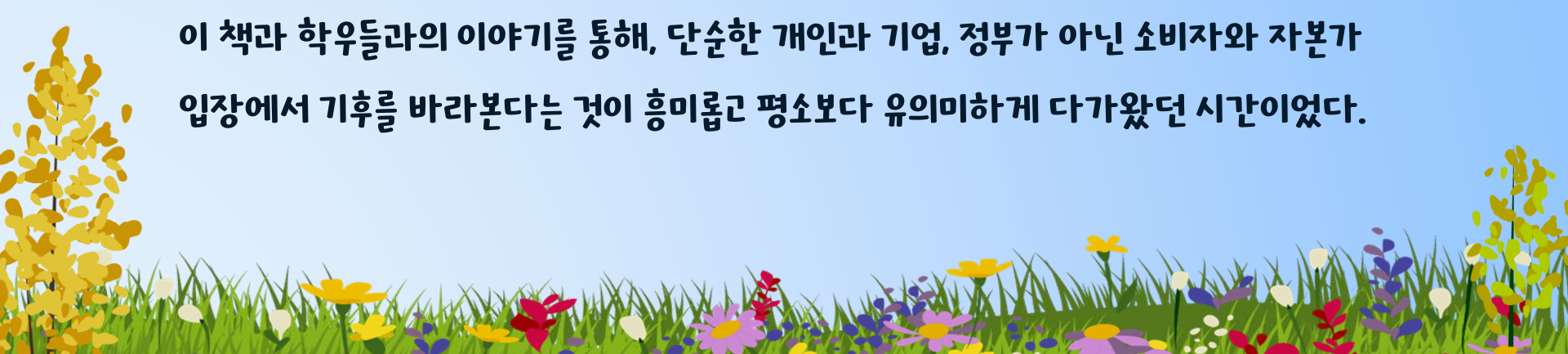


기후에 관한 새로운 시선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만나보는 경험

인터넷의 서평도, 이야기를 나누어 본 대부분의 학우들도 '지금까지 해왔던 재활용이 생각보다 큰 힘이 없는 활동이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우리가 해왔던 것이 작은 시민의 힘으로만 치부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중략)

이 책과 학우들과의 이야기를 통해, 단순한 개인과 기업, 정부가 아닌 소비자와 자본가 입장에서 기후를 바라본다는 것이 흥미롭고 평소보다 유의미하게 다가왔던 시간이었다.



기후에 관한 새로운 시선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만나보는 경험

첫 번째 만난 분에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 흔히 말하는 환경을 위해 해야 하는 일이라고 일상에서 실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게 되었다. 근데 이때 신기하게도 나와 그 질문이 겹치게 되어 서로 놀랐다. 같은 책을 읽고 같은 생각을 하게 되어 서로 질문을 하게 되는 상황이 너무나도 신기했다. 심지어 그에 대한 대답 또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 신기했다. 비슷한 나이대로 비슷한 말을 듣고 자란 세대여서 비슷한 생각을 가졌는지 이에 대해서 모르겠지만, 나처럼 이 책을 읽고 그 부분에서 충격을 받는 사람을 만나 공감이 잘 된다고 생각이 들었다.



기후에 관한 새로운 시선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만나보는 경험

처음에 둘다 이에 대한 충격이 비슷했지만, 그 분이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이에 대한 선택이 바뀐다면, 기업들 또한 만드는 제품 또한 달라지고 이 또한 환경에 좋은 영향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나에게서 새로운 충격으로 다가왔다. 여태까지 소비자가 기업 아래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새로운 의견을 생각해보니, 사람들이 애초에 그 제품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기업은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으로 새로운 생산을 할 테니 우리의 이러한 환경을 향한 소소한 실천과 생각이 우리의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기후에 관한 새로운 시선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만나보는 경험

다른 사람과 깊이 있는 대화, 토론을 오랜만에 해보았다. 평소에는 불편한 주제들은 꺼내지 않고 회피하는 나로서는 처음에는 힘들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려고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은 내 가치관과는 상관없이 나의 시야를 넓혀 주었던 것 같다.





기후에 관한 새로운 시선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만나보는 경험

책에 관해 첫 번째 짝꿍과 대화를 나누며 내가 환경문제에 관해 무척이나 비관적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후 두 번째 짝꿍과 대화를 하면서 '라연 지금 발생하는 기후 위기가 해결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들었다. 비관적이라 그런지 해결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후에 관한 새로운 시선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만나보는 경험



기후와 기업에 관한 내용을 다뤘는데 나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이 책을 보아서 기후 변화가 나는 당연하고 자연의 이치라고 생각한다. 같이 의논을 한 분들도 내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말하자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맞다고 하셨다. 자신의 생각을 듣고 싶었지만 나의 생각에 순응을 하셔서 더 이야기를 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굳이 내가 보는 시선으로만 보지않고 다른 시선으로 봤을 땐 확실히 기업들이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척에 많은 비판이 오갔다. 그렇기에 두가지의 시선으로 바라본 기업들의 행동에 대해 비교를 하면서 어떤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지 토론을 했어야 했던 것 같다.



기후에 관한 새로운 시선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만나보는 경험

오, 이게 뭐람. 물론, 책 자체에서 그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것이 사실상 아쉬운 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나, 애초에 새로운 '시선'을 제시하는 책에서 해결책까지 제시할 필요가 있나 라는 것으로 결론이 이어졌다. 이런 관점에서 환경문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은 (내 기준으로) 아예 처음 봤기 때문이다. 그리고 환경문제의 주범이 자본주의라고 지적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회체제 자체를 부정해야 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임을 이 책을 읽고 있는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러한 주장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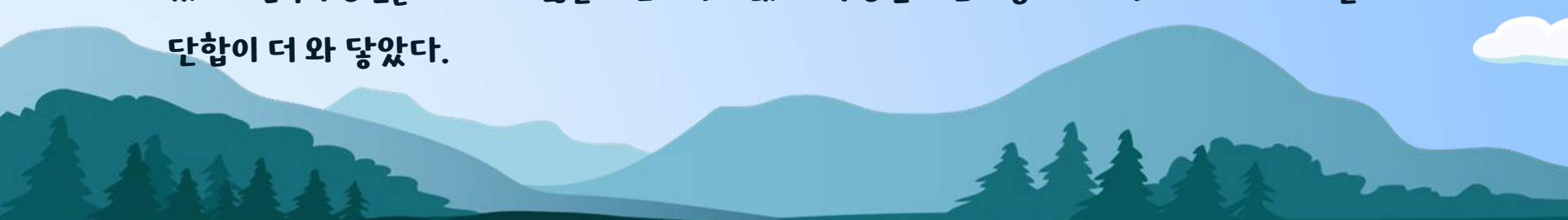
기후에 관한 새로운 시선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만나보는 경험

아직도 꽤 많은 개인은 자본주의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못할 것이다. 이 체제가 환경문제를 이끌고 있노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당연히 저자도 이 책을 읽은 나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거기서 혜택을 겪고 있다. 그러나 그 체제에 속해있다고 해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문제 제기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일명 지구 팀플이라고 부르게 된 인류 전체의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찾아내기에는 적합한 태도라는 생각이 든다. 다시 말해, 저자가 제시하는 기후위기의 새로운 관점은 완벽한 해결책의 제시(애초에 전 인류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에서 개인이 완벽한 해결책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수 있었다면 이미 해결되었을 것이므로.)가 아니라 새로운 관점, 즉, 자본주의 사회에 속해있는 우리가 가져야 할 경계하는 태도를 제시했다고 생각한다.



기후에 관한 새로운 시선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만나보는 경험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대사 중에 좋아하는 대사가 있다. 일본이 조선의 상권을 침해하는 과정에서 임금은 스승이자 가장 위상이 있는 선비가 시위를 하는 장면이 있다. 임금은 스승을 감옥에 가두게 되고 신하들은 반발하는 모습이 있다. 하지만 임금은 자신의 분노는 힘이 없지만 백성들의 분노는 힘이 있다며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백성의 단합을 이끌어낸다. 이 장면이 인상 깊기도 하고 여러 사회문제 사례를 보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구성원의 힘이라고 항상 생각한다. 궁극적인 해결방안은 아니었지만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구성원들의 단합은 큰 가치를 낳았고 올바른 좋은 정책이나 방안이 있어도 결국 구성원들이 지키지 않는다면 효력이 없으니 구성원의 힘이 중요하고 작가가 이야기하는 단합이 더 와 닿았다.





기후에 관한 새로운 시선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만나보는 경험

그래서 수업에서 친구들이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시선, 해결하려는 의지, 그리고 구체적인 해결책과 힘을 모을 때 어떤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동참하게 하고 설득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깊은 대화를 깊게 그리고 많이 나누지는 못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통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있다. 바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더라도 본인의 이익은 보장이 되고 손해를 보면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이다.





시선이 머무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된다



질문들을 환영해 😊



다음 주에 만나!

